교육과정평가연구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2006, Vol. 9, No. 2, pp. 231～260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중학교 교과서의 인구 관련 내용 개선 방향[1)]

김 태 헌(한 국 교 원 대 학 교 교 수)
박 강 용(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권 부 경(청 주 상 당 고 등 학 교 교 사)
강 정 애(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사)
이 수 영(서 울 방 학 중 학 교 교 사)

≪ 요 약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0년 4.53명의 높은 수준에서 2004년 1.16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내용은 사회, 도덕, 가정, 체육, 국어, 환경 등 교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 영역은 주로 사회, 가정, 체육, 환경 과목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족 및 성평등 영역과 관련된 교과내용은 다양한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와 도덕 교과목에 치중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인구, 가족, 성평등 영역의 교과내용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교육내용 자체도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교육은 다양한 인구 관련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관련 교과내용에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과서 상당부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어 : 인구교육, 가치교육, 중학교 교과서, 저출산, 합계출산율*

1) 이 논문은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 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 방향'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Ⅰ.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초에는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등 사회현상의 변화와 의식변화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으로 급속하게 낮아졌으며,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까지 낮아졌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수준은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1.6명)은 물론, 출산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탈리아(2003년 1.29명), 스페인(2002년 1.25명), 일본(2005년 1.25명) 등보다 더 낮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상 상당 기간 동안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 대표적인 인구학적 현상은 인구고령화 현상이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은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의 위축 및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퇴직자와 생산 연령층 간의 세대 갈등을 야기한다. 이에 국가, 사회, 학계에서도 보다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분석·연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준비과정으로서 결혼과 출산, 양육, 성역할, 가족의 의미와 역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인식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으로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태도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을 실천하는 데 교과서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습 교재 중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즉,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적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학습 내용의 범위와 길이를 제시하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출산수준과 가치관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인구 관련 내용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셋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인구교육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Ⅱ. 저출산 문제와 인구교육

## 1. 출산 수준과 가치관의 변동 추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의 잔존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가족의 변화, 이동의 증가, 교육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빠른 가치관의 변화[2]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 미혼 인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 가치관[3]의 수준은 가족 내에서의 남녀 간 가사분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업적 역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결혼·출산과 자아실현의 정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가치관의 수준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출산수준의 변화와 출산수준이 빠르게 감소한 원인을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성평등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고찰은 미래 사회의 결혼 당사자나 부모가 될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오는 데 뒷받침 될 수 있다.

### 가. 합계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당시 6.0명으로 아주 높았다(<표 1> 참조). 이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또는 평생에 걸쳐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사람들은 성장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

2) 반 드 카(Van de Kaa)와 론 레스티지(Ron Lesthaeghe)는 1960년대 이래 출산력의 변동은 시대변화와 가치관이 변동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라는 제도 대신 남녀 결합의 한 방식으로 동거가 늘어나며, 결혼에서 자기실현을 이룩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통해 결혼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 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뿐만 아니라 결혼 외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함(은기수, 2005, pp. 31～32).

3) 최근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주의와 가족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받아들여지고, 결혼과 함께 확대된 가족 연결망 속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설사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결혼 내에서 가사분담이나 자녀양육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가족사에서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여전히 여자로 지목되는 한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음(은기수, 2005, p. 34).

〈표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동 추이(1960~2005)

단위 : 천 명

| 구분 | 1960 | 1970 | 1975 | 1980 | 1983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합계출산율 | 6.00 | 4.53 | 3.47 | 2.83 | 2.08 | 1.67 | 1.59 | 1.65 | 1.47 | 1.3 | 1.17 | 1.19 | 1.16 | 1.08 |
| 출생아 수 | 1,041 | 1,007 | 875 | 865 | 663 | 656 | 656 | 721 | 637 | 557 | 495 | 494 | 476 | 438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자녀관은 소자녀관으로 급격히 전환하였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에 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1.6명 내외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출산율은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래 1980년대 중반 기간 동안 '제1차 출산율 감소기'에 이어 '제2차 출산율 감소기'가 시작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부터 1.3명 이하로 낮아져 이른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출산율 감소는 필연적으로 총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 수 규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초까지 연간 1백만 명 이상이었으나, 2005년에는 43.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나. 결혼관의 변화

과거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약화되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대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가치관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보편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의 71.4%(반드시 결혼은 29.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관(2005)

단위 : %

| 성별·연령 | 반드시 결혼해야 함 | 결혼하는 편이 좋음 | 해도 안 해도 무방 | 하지 않는 편이 좋음 | 모름 | 계(사례 수) |
|---|---|---|---|---|---|---|
| 미혼 남성[1)] | 29.4 | 42.0 | 23.5 | 2.2 | 3.0 | 100.0(1,466) |
| 20~24세 | 34.9 | 43.1 | 17.6 | 1.2 | 3.2 | 100.0( 562) |
| 25~29세 | 29.4 | 43.1 | 22.3 | 2.7 | 2.5 | 100.0( 480) |
| 30~34세 | 26.8 | 41.5 | 26.8 | 2.2 | 2.6 | 100.0( 272) |
| 35~44세 | 13.7 | 34.6 | 42.5 | 4.6 | 4.6 | 100.0( 153) |
| 미혼 여성[1)] | 12.9 | 36.3 | 44.9 | 3.7 | 2.2 | 100.0(1,204) |
| 20~24세 | 14.2 | 38.7 | 42.2 | 3.2 | 1.7 | 100.0( 654) |
| 25~29세 | 12.4 | 37.3 | 43.9 | 3.0 | 3.3 | 100.0( 362) |
| 30~34세 | 9.2 | 29.8 | 53.4 | 5.3 | 2.3 | 100.0( 131) |
| 35~44세 | 7.0 | 17.5 | 61.4 | 12.3 | 1.8 | 100.0( 57) |
| 1998 미혼 여성 | 20.3 | 43.0 | 32.2 | 1.3 | 3.2 | -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 다. 자녀관의 변화

가족의 크기에 대한 가치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자녀관과 관련되어 있다. 자녀관은 사회, 문화, 근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유교 문화권에서와 같이 가족과 친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에서는 '가계의 계승'이 자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후 의지'가, 경제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기본적인 자녀의 가치가 된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보인다.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1960년대 초까지도 대가족[4)]의 가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소가족 가치로의 빠른 변화가 이루어져 현재에는 원하는 자녀 수가 거의 2명 또는 1명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크기와 관련된 자녀관의 변화는 출산력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권태환·김두섭, 1992, pp. 105~108).

유배우 부인의 자녀의 필요성을 보면(<표 3> 참조),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7년 73.7%로 '갖는 것이 좋다'를 합하면 90%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다는 태도는 2005년 23.4%로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반대로

4) 여기에서 대가족이란 단순히 자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갖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하여 자녀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하여, 자녀관의 변화가 소자녀관으로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7~2005)

단위 : %

| 연도 | 반드시 가져야 함 | 갖는 것이 좋음 | 없어도 무관 | 모르겠음 | 계 |
|---|---|---|---|---|---|
| 1997 | 73.7 | 16.6 | 9.4 | 0.3 | 100.0(5,409) |
| 2000 | 58.1 | 31.5 | 10.0 | 0.5 | 100.0(6,363) |
| 2003 | 54.5 | 32.3 | 12.6 | 0.6 | 100.0(6,593) |
| 2005 | 23.4 | 41.5 | 35.0 | - | 100.0(3,588) |

※ 2005년 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져야 함으로, 대체로 찬성은 갖는 것이 좋음으로 분류함.
※ 출처 :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다음으로 자녀 효용에 대한 가치관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계 계승, 노동력 확보, 노후 부양에서의 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가 매우 중요시 되었고, 재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자녀 효용성에 대한 가치관은 점차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 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관(노후 보장, 가문 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 효용에 대한 가치관(2005)

단위 : %

| 가치관 | 전적 찬성 | 대체로 찬성 | 별로 찬성 않음 | 전혀 찬성 않음 | 계 |
|---|---|---|---|---|---|
|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 64.1 | 33.7 | 2.1 | 0.1 | 100.0 |
| 자녀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 | 61.6 | 35.2 | 3.0 | 0.2 | 100.0 |
|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 37.0 | 42.2 | 19.1 | 1.7 | 100.0 |
|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7 | 17.3 | 63.5 | 15.5 | 100.0 |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 7.4 | 19.8 | 53.9 | 18.9 | 100.0 |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 7.7 | 30.5 | 46.8 | 15.0 | 100.0 |
|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는 않는다. | 8.7 | 39.7 | 42.6 | 8.9 | 100.0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음(찬성 97.8%)’과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줌(찬성 96.8%)’에 대해 기혼 여성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찬성 79.2%)’는 견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부정적인 태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보거나(반대 79.0%), 가문 계승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나(반대 72.8%), 출산이 사회적 의무라고 보는 견해(반대 61.8%)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 않는다(반대 51.5%)’는 견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자녀관 변화는 결국 소자녀 선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 라. 성평등관의 변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 혹은 가족 내 남녀 간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일정한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5]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불평등 구조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 유배우 부인의 관점에서 부부가 가사를 공평히 분담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41.5%로 그렇지 않은 경우 58.5%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자녀 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가사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급격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가족 내에서의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남성은 가정 일을 도외시하고 직장에만 전념하고, 여성은 육아・가사에만 숙명적으로 전념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Chesnais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Torr & Short는 Chesnais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 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 부부 간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가사 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가사 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 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음(박수미, 2005, p. 39 재인용).

〈표 5〉 현존 자녀 수별 부부 간 가사 분담 공평 정도(2005)

단위 : %

| 현존 자녀 수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사례 수) |
|---|---|---|---|---|---|
| 전체 | 5.9 | 35.6 | 35.5 | 23.0 | 100.0(3,589) |
| 0명 | 12.7 | 51.9 | 25.7 | 9.7 | 100.0( 268) |
| 1명 | 7.4 | 38.0 | 36.1 | 18.4 | 100.0( 739) |
| 2명 | 4.8 | 33.2 | 36.7 | 25.2 | 100.0(2,196) |
| 3명 이상 | 4.7 | 33.7 | 33.7 | 28.0 | 100.0( 386)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유배우 부인 20~44세 기준.

##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교육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20여년 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총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10년대 0.45%로 둔화되고, 2020년대부터는 부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15~44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 명, 2020년 152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저축률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의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을 1.2명으로 유지할 경우, 자본스톡 증가율은 2000년대 5.14%에서 2040년대 0.80%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공급 감소,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저축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은 2000년대 5.10%에서 2020년대 3.52%, 2040년대 1.48%로 둔화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임은 물론이다(Ibid.,).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 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 지출액이 연금 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국민연금 당기적자는 2033년에 발생하고, 그 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대하여 GDP 대비 마이너스 적립금 비율은 2047년 0.03%에서 2060년 0.38%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출 중 노인인구 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에 기인한 노인인구(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중기 및 후기 노인층)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박순일 외, 2004).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세입기반이 잠식되는 반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은 가족 규모를 축소시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 재정의 한계와 공공 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출생, 사망 등의 인구변동 요인과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구 규모,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관과 관련되므로 교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인구교육이란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 결정,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인구의 규모, 인구 분포 및 변동이 개인과 가정,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탐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인구 의식의 합리적인 전환을 의도하는 교육적 활동[6]이라고 할 수 있다(고려대학교인구교육위원회편, 1978, p. 148; 김수일 외, 1975, p. 12; 김대연, 1989, p. 245).

박용헌(1986)은 인구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인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인구 현상과 이와 관련된 사회 및 환경 현상,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인구 문제가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알게 함으로써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인구 문제와 여러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책, 조직, 활동들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다섯째, 출산 증대와 인구 증가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제 요인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동기를 갖도록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인구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시켜 사적 인구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

6)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Burleson은 “인구교육은 인구, 가족 및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구 인식, 가족생활 생사교육 및 기본적인 가치관 교육”(Noel-David, 1969)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으며, Simmons(1969, p. 2)는 “인구교육은 인구 문제에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족계획의 방법보다 더 포괄적인 수단으로 네 가지 교육적 접근 즉, 성교육, 가족생활, 인구 인식 및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하여금 그에 대한 태도, 가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김대연, 1989). 또한 김태헌(2005, p. 23)은 한국에서의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한 인구 대책으로 사회의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향으로 유도하려는 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인구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인구관을 확립 내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와 같이 형성된 인구관이 실천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의 출발점은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내용이 가치 있다는 것은 첫째, 인간의 논리적 양식과 관련된 학문의 지식적 측면이고, 둘째, 사회 또는 개인의 생활에 적합한 생활에서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교육 내용 선정 기준은 적어도 개인, 사회, 학문의 세 측면에서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구교육 목표에 따라 선정되는 가치 있는 인구교육 내용은 학교의 교수·학습을 통해 대부분 실천되고 있다. 즉, 학교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의 매체로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규정된 범위와 배열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과 더불어 학습 경험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변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한 인구교육 내용 개선이 불가피하다.

# Ⅲ. 인구교육 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 방향

## 1. 인구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틀

### 가. 분석 대상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반드시 교과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또한, 교사의 노력 여하와 재량에 의해서도 수업 방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거의 교과서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에 따라 선정·조직된 경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구체적인 장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인구교육 내용은 몇 개의 교과서 속에 대단원의 주제 혹은 소단원의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제1997-15호)에 의거해서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7]. 현재

7) 교육인적자원부, 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p. 3.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격에 부합하고, 교육목적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어 있다. 교과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 국정 교과와 검인정 교과의 경우에는 저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격과 목적이 반영되어 집필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8].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교육과 관련된 교과와 학습 목표는 <표 6>과 같다.

〈표 6〉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 관련 학습 목표

| 교과 | 학년 | 대주제 | 학습 목표 |
|---|---|---|---|
| 도덕 | 7 | (2) 가정·이웃·학교 생활 | (가) 행복한 가정생활<br>가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각 구성원 간에 실천해야 할 역할과 도리를 다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 | 9 | (2) 가정·이웃·학교 생활 | (나) 가정·친족·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br>가정·친족·이웃 생활의 도덕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 사회 | 7 | (2) 중부지방의 생활 | (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br>③ 수도권으로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된 원인을 조사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대책을 찾아본다.<br>(다) 관광 자원이 풍부한 관동지방<br><심화과정><br>① 석탄산업이 발달하였던 지역의 인구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한다. |
| | 9 | (6) 인구 성장과 도시발달 | (가) 인구 성장과 인구 이동<br>① 인구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경제발전 단계와 관련지어 설명한다.<br>② 인구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인구 분포 요인을 알아본다.<br>③ 인구 이동 현상을 살펴보고, 인구 이동 원인과 관련지어 설명한다.<br><심화과정><br>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 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본다.<br>(다) 인구 및 도시 문제<br>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br>②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 실과(기술가정) | 7 | (1) 나와 가족의 이해 | ③ 가족 관계의 의미를 알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법을 익혀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 환경 | 재량활동 선택 | (2) 환경의 변화 | (가) 인간 활동과 환경 변화<br>② 인구 증가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인구 증가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8)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후 제출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교의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이다. 중학교 보통 교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로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검인정 교과서는 중학교 708책임(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4항-6항, http://daehane.com/newsource2/textbook).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인구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사회교과와 실과교과는 현재 중학교에서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전 교과서[9]로 하였다. 그 외의 교과는 현재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10]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우선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며, 학교에서의 인구교육 효과는 전략교과 교과서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에게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11].

## 나. 분석 범위 및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할 교과서 분석의 범위 및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영역으로 인구, 가족 및 성평등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 체계에서 인구와 가족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평등은 실체적 영역이기보다 가치 영역으로서, 인구 영역과 가족영역 안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 성평등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 영역의 요인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가족 영역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성평등의 다측면적 관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을 인구, 가족과 동등한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석틀에 포함한다.

인구, 가족 및 성평등의 영역은 하위수준의 부문들로 구성된다. 인구 영역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 변동 요인, 인구 자질 등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구 변동 요인은 출생, 사망 및 이동이 포함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들 요인이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 및 인구 분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술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포함하였다.

〈표 7〉 인구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 범위 및 분석 내용

| 분석 범위 | | 분석 내용 | |
|---|---|---|---|
| 영역 | 부문 | 현상(fact) | 가치 |
| 인구 | 인구 규모 | 전국, 지역, 특정집단의 인구 규모 및 변동 추이, 제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과대 인구, 과소 인구, 적정 인구 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 | 인구 구조 | 성,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구조와 변동 추이, 제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제 인구 구조 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 | 인구 분포 | 인구 집적(과밀), 인구 분산(과소), 도시화, 농촌 인구 비율 등 지역 간 인구 분포와 변화, 인구 분포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관련 정책 등 | 인구 집중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9) 중학교 사회 1, 2, 3 (주)고려출판, (주)교학사, (주)도서출판 디딤돌, (주)금성출판사, (주)동화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총 7종 21책; 기술·가정 1, 2, 3 홍진P&M, (주)동화사, (주)교학사, (주)교학연구사, (주)금성출판사, (주)지학사, (주)대한교과서, 두산, (주)천재교육, 형설출판사, 총 10종 30책

10) 도덕 1, 2, 3 (주)대한교과서, 총 1종 3책; 중학국어 2-1, 2-2 (주)대한교과서, 총 1종 2책; 과학1, 3 (주)지학사 총 1종 2책; 환경,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총 1종 1책; 체육 1, (주)금성출판사 총 1종 1책

11) 여기서 전략교과란 인구교육에 대한 학습목표가 한 단원에 2개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회교과와 실과교과로 인구교육의 효과가 큰 경우를 말한다.

| | | | |
|---|---|---|---|
| | 인구 변동 요인 | 출생, 사망, 이동의 수준과 그 변화,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인구 변동 요인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 인구 자질 | 성교육, 성문제(성병·에이즈 등), 혼전임신 등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정책 등 | 이성교제, 성활동, 혼전임신, 에이즈 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 가족 | 가족 형성(결혼) | 결혼 문화, 결혼 건수, 결혼률 등의 현황, 관련 정책 등 | 결혼의 필요성, 독신, 동거, 미혼모 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 | 가족 규모(자녀) | 자녀 수의 변화,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자녀관(자녀의 필요성, 효용가치, 선호 자녀 수 등) |
| | 가족 형태(구조) | 핵가족, 확대가족, 탈가족, 미혼모, 입양 등 현황과 문제점,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
| | 가족 해체(이혼) | 이혼, 별거 등의 현황과 변동 추이,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이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 세대 간 관계 |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노부모 세대 등의 역할관계 및 갈등 | 세대 간 관계에 대한 태도 등 |
| 성평등 | 가족 내 | 가족 내 부부 간 가사 및 자녀양육의 분담 실태,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등 |
| | 일반 사회 | 노동시장 등에서의 여성 차별의 실태, 사회현상과의 관계, 관련 정책 등 | 여성 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

가족 영역에는 가족 형성(결혼), 가족 규모(자녀), 가족 형태(구조), 가족 해체(이혼), 세대 간 관계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성평등 영역에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일반사회에서의 성평등을 포함한다. 전자는 주로 가족 내에서의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후자는 주로 일반사회에서의 성차별 관행에 관한 교과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12].

인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급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구 변동 요인(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에 직면할 각종 문제들에 동참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 사회에 대한 적절

12)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조직에 관한 연구(송용의 외, pp. 15～18),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김수일 외, pp. 16～18)에서 인구교육을 인간 생식과 가족 계획, 가족 규모와 생활 수준, 인구와 환경, 인구와 경제, 인구 현상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인구 정책과 인구 사업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옥임 외(1979)는 중·고등학교 인구교육 관련 내용 분석연구에서는 인구인식교육, 인구분석교육, 환경교육, 생식교육, 건강교육, 가정생활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권상수(1999)는 인구 현상의 변화와 인구교육 내용의 적절성 연구에서 김영일 외(1975), 송용의 외(1975), 이옥임 외(1979)의 연구를 종합하여 크게 인구의 기본지식, 인구와 사회현상의 관계, 삶의 질로 크게 구분하고, 각 하위영역을 인구의 특성 등 11개 소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수일 외(1975)의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연구에는 인구인식교육, 인구분석교육, 생식교육, 건강교육, 가정생활교육, 환경교육으로 구분하였고, Jayasuriya는 인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인구 성장과 인간의 발달과의 관계, 도시화 문제, 성의 사회심리적 국면과 생식과정, 그리고 인구 계획을 들고 있음(김대연, 1989, 재인용).

한 대응은 비단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내용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파급효과와 그 심각성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 제공 및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인구 변동 요인으로서 결혼·출산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관에 대해 교과내용이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는 편견 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다.

### 다. 분석 방법

교과서에 기술된 인구, 가족, 성평등에 대한 본문 내용과 읽기 자료 및 삽화 등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소단원이나 제재를 기준으로 인구, 가족 및 성평등에 관한 교과내용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교과서 본문과 본문 이외의 영역에서 주요 인구 관련 교육 내용의 진술된 빈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문에는 단원의 첫머리에 나오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의 정리를 제외하였다.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탐구 문제, 본문의 개념을 설명하는 주석과 탐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이나 참고자료, 읽기자료, 삽화 및 도표를 포함하였다.

둘째, 문장을 기준 단위로 내용을 분석하되, 가능하면 단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같은 문장 속에 각기 다른 인구교육 내용이 있는 경우, 문장의 성격이 대등하면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고,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은 주문장이 의미하는 영역에 포함하였다.

## 2. 인구 관련 교과내용의 실태 및 문제점

### 가. 분석 내용의 실태 및 문제점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내용은 사회, 기술·가정, 도덕, 체육, 환경, 국어, 과학 교과목 순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표 8>, <표 9>, <표 10> 참조). 인구 영역과 관련된 교과내용은 주로 사회 교과목 본문에서 87회, 본문 이외의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탐구활동 등에서 196회, 체육 교과목 본문에서 6회, 본문 이외에서 3회, 기술·가정 교과목 본문에서 2회, 분문 이외에서 6회, 환경 교과목 본문에서 3회, 본문 이외에서 3회, 과학 교과목 본문 이외에서 3회, 도덕 과목 본문 이외에서 1회 순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사회 교과목에 다루어지고 있고, 기술·가정 교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족 및 성평등 영역과 관련된 교과 내용은 기술·가정 교과목 본문에서 26회, 분문 이외에서 169회, 사회 교과목 본문에서 15회, 분문 이외에서 72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에 비하여 기술·가정 교과목에 더 치중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인구, 가족, 성평등 영역의 교과내용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 목표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서에서 진술되는 교육내용이 본문과 본문 이외의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탐구활동 등의 영역에서 진술 빈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기존의 학문적 지식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설명형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지식 생성을 강조하는 발견이나 탐구형인 경우에는 본문 이외의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탐구활동 등으로 교육 내용을 저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 집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고력, 창의력,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함양하고, 후속 학습에의 전이효과나 미래생활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문보다는 본문 이외의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탐구활동 등에서 즉, 설명형보다는 탐구형이나 발견형의 교과내용 제시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내용 자체도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 ‘지역과 사회탐구’와 ‘중부지방의 생활’ 단원이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와 인구 분포와 관련한 교과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2학년 과정에서는 ‘현대사회와 민주시민’과 ‘개인과 사회발전’, ‘사회생활과 법 규범’의 단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가족 형성에 대한 교과내용을 다루고 있다. 3학년 과정에서는 ‘인구 성장과 도시발달’과 ‘현대사회의 변화와 대응’, ‘시장경제의 이해’의 단원에서 인구와 가족,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교과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목의 경우에는 1학년 과정 ‘나와 가족생활’ 단원이 인구 자질, 가족 및 성평등 영역과 관련한 교과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2학년 과정의 교과내용 중 인구, 가족 및 성평등 영역들을 직접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단원은 없다. 2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성(결혼), 가족 형태, 가족 규모 및 성평등(가족 내, 일반사회)에 대한 교과내용이 그림 자료와 비텍스트에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인구 영역(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 변동 요인, 인구 자질), 가족 영역 중 가족해체와 세대관계에 관한 교과내용은 전혀 없다.

3학년 과정에서는 인구 영역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 영역으로는 주로 가족 형성, 가족 형태 및 가족 규모가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가족 영역 중 세대 간 관계는 일부, 그리고 가족 해체(이혼)는 교과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평등 영역으로는 가족 내 성평등과 사회적 성평등 모두가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성평등보다 가족 내 성평등에 상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다. 한편, 모든 학년 공통으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나 원인 등이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덕 교과목의 경우에는 1학년 과정 ‘삶의 의미와 도덕’ 단원이 대체적으로 가족 형성, 가

족 형태, 가족 규모, 성평등과 관련한 교과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3학년 과정에서는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와 '학교생활과 도덕 문제'의 단원에서 가족 형태와 가족 규모, 그리고 가족 내 성평등과 일반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가족해체와 세대 간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외의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 관련 내용[13]은 삽화나 보조자료 등에서 일부 내용만 다루고 있다.

〈표 8〉 사회 교과 인구 관련 교과내용 분석 내용

단위 : 진술 빈도

| 영역 | | | 인구 | | | | | 가족 | | | | | 성평등 | |
|---|---|---|---|---|---|---|---|---|---|---|---|---|---|---|
| | | | 인구 규모 | 인구 구조 | 인구 분포 | 인구 변동 | 인구 자질 | 가족 형성 | 가족 규모 | 가족 형태 | 가족 해체 | 세대간 관계 | 가족 내 | 일반 사회 |
| 사회[14] | 1 | 본문 | 4 | 2 | 12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5 | 4 | 10 | – | – | – | – | – | – | – | – | – |
| | 2 | 본문 | – | – | – | – | – | – | – | – | – | 1 | – | 8 |
| | | 기타 | – | 1 | – | – | – | 6 | – | – | 1 | 2 | 3 | 15 |
| | 3 | 본문 | 11 | 8 | 25 | 10 | – | – | 1 | 1 | – | 1 | – | 3 |
| | | 기타 | 23 | 17 | 24 | 30 | – | – | 13 | 15 | – | 1 | 3 | 13 |
| 합계 | | 본문 | 15 | 10 | 37 | 10 | – | – | 1 | 1 | – | 2 | – | 11 |
| | | 기타 | 38 | 22 | 34 | 30 | – | 6 | 13 | 15 | 1 | 3 | 6 | 28 |

※ 본문을 제외한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활동하기, 탐구과정, 그래프 등을 의미함.

〈표 9〉 기술·가정 교과 인구 관련 교과내용 분석 내용

단위 : 진술 빈도

| 영역 | | | 인구 | | | | | 가족 | | | | | 성평등 | |
|---|---|---|---|---|---|---|---|---|---|---|---|---|---|---|
| | | | 인구 규모 | 인구 구조 | 인구 분포 | 인구 변동 | 인구 자질 | 가족 형성 | 가족 규모 | 가족 형태 | 가족 해체 | 세대 간 관계 | 가족 내 | 일반 사회 |
| 기술·가정[15] | 1 | 본문 | – | – | – | – | 2 | – | – | – | – | 3 | – | 1 |
| | | 기타 | – | – | – | – | 3 | – | 4 | 4 | – | 1 | 2 | 2 |
| | 2 |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5 | 10 | 10 | – | – | 1 | – |
| | 3 | 본문 | – | – | – | – | – | 6 | 5 | 8 | – | 1 | 1 | 1 |
| | | 기타 | – | – | – | 1 | – | 3 | 45 | 50 | – | – | 23 | 10 |
| 합계 | | 본문 | – | – | – | – | 2 | 6 | 5 | 8 | – | 4 | 1 | 2 |
| | | 기타 | – | 2 | – | 1 | 3 | 8 | 59 | 64 | – | 1 | 26 | 12 |

※ 기타 : 본문을 제외한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 자료, 활동하기, 탐구과정, 그래프 등을 의미함.

13)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는 기타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 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 방향'(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2005-30)을 참조하기 바람.

14) 중학교 사회 1, 2, 3 총 7종 21책

15) 기술·가정 1, 2, 3 총 10종 30책

〈표 10〉 전략교과 외 교과별 인구 관련 교과내용 분석 내용

단위 : 진술 빈도

| 영역 | | | 인구 | | | | | 가족 | | | | | 성평등 | |
|---|---|---|---|---|---|---|---|---|---|---|---|---|---|---|
| | | | 인구 규모 | 인구 구조 | 인구 분포 | 인구 변동 | 인구 자질 | 가족 형성 | 가족 규모 | 가족 형태 | 가족 해체 | 세대 간 관계 | 가족 내 | 일반 사회 |
| 과학[16] | 1 |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3 |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3 | – | – | – | – | – | – | – |
| 국어[17] | 2-1 |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 | 1 |
| | 2-2 |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2 | 2 | – | – | – | – |
| 도덕[18] | 1 | 본문 | – | – | – | – | – | 1 | – | 3 | – | – | 1 | – |
| | | 기타 | – | – | – | – | – | 2 | 5 | 4 | – | – | – | – |
| | 2 | 본문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기타 | – | – | – | – | 1 | – | – | 1 | – | – | – | – |
| | 3 | 본문 | – | – | – | – | – | – | 1 | 1 | 1 | 1 | 3 | 3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 3 |
| 체육[19] | 1 | 본문 | – | – | – | 1 | 5 | 1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2 | 1 | – | – | – | – | – | – | – |
| 환경[20] | 재량 | 본문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본문 | 3 | – | – | 1 | 5 | 2 | 1 | 5 | 1 | 1 | 4 | 3 |
| | | 기타 | 3 | – | – | 2 | 5 | 2 | 8 | 8 | – | – | 3 | 4 |

※ 본문을 제외한 도표, 삽화, 사진, 그림, 읽기자료, 활동하기, 탐구과정, 그래프 등을 의미한다.

## 나. 영역별 실태 및 문제점

### 1) 인구 영역

인구 영역은 크게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 변동 요인, 인구 자질 등으로 구

16) 과학 1, 3 총 1종 2책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어 교과서 내용 간 커다란 차이가 없어 무선 추출하여 분석함.
17) 국어 2-1, 2-2, 총 1종 2책으로 국정임.
18) 도덕 1, 2, 3 총 1종 3책으로 국정임.
19) 체육 1종 1책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어 교과서 내용 간 커다란 차이가 없어 무선 추출하여 분석함.
20) 환경 1종 1책으로 단일종임.

분할 수 있는데, 각 세부 영역의 내용들이 다뤄지는 범위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다. 즉,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 변동 요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와 환경 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교육과 성문제 등 인구자질 관련 내용은 주로 체육과 가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 영역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목을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1] 먼저, 중학교 1학년 사회과목은 한국의 중부, 남부, 북부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산업, 인구 특성을 다룬 한국지리 부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대륙별 특성에 대한 세계지리 부문, 그리고 세계 고대사와 아시아의 역사를 다룬 부문 등 크게 3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특성에 따라 인구 관련 세부 영역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지리 부문에서는 한국의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분포 등의 변화와 이를 통해 파생되는 사회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 영역 중 앞서 지적한 규모, 구조 및 분포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도시지역은 환경오염과 교통 체증 문제를,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과 경제적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략)… 이러한 문제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인구의 급격한 증가, 개발 위주의 경제정책, 환경에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 지역 사회에서만 나타나기도 한다. (중1 사회, 2006, ○○출판, p. 22)

다시 말해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고용, 주택,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전국 및 지역의 인구 규모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 등에 대한 교과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22]. 인구 이동 및 도시화는 근대화 과정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21) 중학교 사회과목의 내용은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단순한 현상, 사실을 전달하는 지식·이해, 어떠한 학습능력을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가치와 태도 형성 부분은 일방적인 주입식 형태가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형성토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가치중립성을 중요시함.

22) 이처럼 인구 관련 내용이 인구 분포에 초점을 두어 논의된 것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80년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정책 추진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도시문제뿐만 아니라 농촌문제,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정부는 인구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인구와 관련된 교육내용 중 인구 분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인구 관련 문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수록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어느 정도 필요하나,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가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생, 사망 등의 인구 변동 요인 자체와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이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지리 부문에서 부족하게나마 인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해, 세계지리나 세계사 부분에서는 인구 영역의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계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학교 사회교과목의 내용 구성상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학년 간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23].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인구 영역 관련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배치됨으로써 고등학교 입시시기를 고려할 때, 인구와 관련된 교육이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인구 구조의 측면이 아닌 단순히 노인 인구 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노인을 사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노인복지정책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인용되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2000년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등 상당 부분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것들로 통계자료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질병과 고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늙고 병든 인구'만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짐이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의료 체계이다. (중3 사회, 2002, ○○○, p. 115)

다음으로 성교육, 성문제, 혼전임신 등 인구 자질에 대한 내용은 주로 체육[24], 가정, 과학 과목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남녀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임신, 피임, 임신중절 및 성윤리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을 이론 위주로 다루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학생들의 성행동 현상과 동떨어져 진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극히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5].

---

23) 중학교 2학년 사회과목은 크게 유럽의 고대·중세사, 서양과 아시아의 근·현대사, 사회문화 및 법 규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24) 체육 과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창의적인 재량활동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나 교사가 교과 시수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25) 미국 내에서 실시해 온 성교육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성경험이나 성에 관해 알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10대 임산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Forrest et al., 1995).

> 남자의 경우는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 음경이 발달함에 따라 사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의 경우는 골반이 커지고 월경이 시작되며 가슴이 커지는데, 이 역시 신체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 (중1 체육, 2001, ○○출판사, p. 168)

가정 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의 대단원 '나와 가족의 이해'에서 관련 교과내용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다. 인구 관련 영역의 경우, 인구 변동 요인 중 평균수명에 대한 내용이 한번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서 인구 자질(성교육・상담, 성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성교육・상담의 내용으로는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이성교제, 임신 및 출산, 피임, 성충동 조절을 위한 방법 등이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유해환경에 노출이 많아진 점, 10대 임신의 문제점, 인공 임신중절의 폐해 및 성병, 에이즈, 성폭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교육・상담에 대한 내용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성에 관심을 갖고 이성교제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성교제의 실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창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녀의 신체적 차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건전하지 못한 이성 교제는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소홀하게 되어 우리들의 미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시기의 남자 청소년들은 성적 충동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 (중략) …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함으로써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성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1 가정, ○○○, 2001(2006인쇄), p. 26)

또한, 초기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성교육 내용에서 다양한 성태도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개방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수업방식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교과에 편파적인 내용이 제시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성의식이나 태도에 기초하여 기술된 교재는 학생들로 하여금 폐쇄적이고 편중된 성의식을 갖게 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 현대에서 서구의 개방적인 성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의 성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점차 성의 순수성과 고귀성이 상실되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1 체육, 2001, ○○출판사, p. 170)

한편, 다른 교과과정에서는 성문제 관련 내용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인 성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각종 성적 비용, 성폭력, 대중매체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훈적인 덕목 나열식의 윤리 규범 교육만으로 되어 있다.

> 신체적으로 성숙기에 있고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영상 매체시대를 맞아 성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탈선과 모방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먼저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중1 체육, 2001, ○○출판사, p. 170)

또한 성관련 내용이 교과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피상적인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다. 남녀 간 성심리의 차이, 성의식의 발달,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 성행위, 근친상간, 성폭행, 성도착, 성문제 해결 방안 등 현실성 있는 성교육 내용이 부족하여, 교과서 자체만으로는 체계적인 성교육 교과내용을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가족 영역

본 연구에서는 가족 영역의 내용을 크게 가족 형성, 가족 규모, 가족 형태, 가족 해체, 세대 간 관계로 구분하여, 교과서 수록 빈도, 기술방식의 가치중립성 여부, 내용의 편향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화, 도시화 및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나 삽화 자체도 1~2명의 소자녀를 가진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핵가족 외에도 노인 가족, 소년 소녀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이라 지칭하는 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완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 올해 일흔 여덟의 한 할머니는 취로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혼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2 사회, 2001, ○○○, p. 150)

또한 가족 형성을 법률혼에 국한하여 접근함으로써, 동거 부부,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성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내용도 부족하다.

> 결혼, 상속, 재산 처분 등의 권리는 개인적인 법률 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중2 사회, 2001, ○○출판, p. 195)

출생, 결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중2 사회, 2001, ○○○, p. 174)

성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결혼을 하면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결실인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된다. (중1 체육, 2001, ○○출판사, p. 170)

부모와 자식,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대 갈등의 현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교과내용은 피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 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2 사회, 2002, ○○○, p. 142)

가정 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태 및 규모가 그림 자료로 많이 제시되어 있고, 세대 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형성(특히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 수는 2자녀가 대부분이다. 자녀 수로 1자녀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1/3정도이나, 3자녀가 등장한 교과내용은 거의 없다. 세대 간 관계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가족 간 의사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갈등 및 대화의 상대자는 대부분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화 상대자가 모두 어머니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함께 교육함으로써 화목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 1학년인 민영이는 늘 어머니가 오빠를 먼저 챙기는 것이 불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늦잠을 자고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고 주번이라 일찍 학교에 갔다. 오빠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민영이에게 준비물을 갖다달라고 부탁을 한다. 민영이는 뾰로통해서 늘 준비물을 안 가져간 오빠가 교실까지 가져오게 시키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한다. 엄마가 준비물을 가져다 주지 말라고 하자 "엄마는 참, 오빠는 오늘 주번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오빠의 준비물을 챙겨드는 민영이를 보며 엄마는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중1 기술·가정, ○○○, 2001, p. 28)

2학년 과정의 경우, '의복 마련과 관리' 및 '자원의 관리와 환경'의 대단원에서 가족 및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일부 교과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삽화나 참고자료 등의 비텍스트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옷차림에 대한 예시로 결혼식과 폐백 장면을 그림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결혼의 보편성을 인식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은 본문에서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삽화에서는 다른 학년과 달리 핵가족 분류에 편부모 가정을 포함시키거나 노인 가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2자녀 핵가족(부부 + 2명의 미혼 자녀) 형태가 교과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가족의 형태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핵가족 중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 가족,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족, 주말에 만나는 주말 가족 등이 있다. (중3 가정, ○○출판사, 2001, p. 168)

### 3) 성평등 영역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과서 개편을 통해 과거보다 양성평등적인 내용으로 교과내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한 교과내용들이 잔존하고 있다.

가정 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본문에 주로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청소년들은 2차 성징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성역할관이 형성되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특성과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는 성역할과 관련된 교과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가사 및 양육을 가족 간에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삽화에는 사회에서의 성평등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참고자료의 경우, 본문에서 고정된 성분업적 역할관의 탈피와 가사의 가족 간 공평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삽화에서는 가전제품 덕분에 여성이 여유를 즐긴다는 식의 묘사가 있어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다. 가전기기의 발달이 가정문화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교과목에서도 아래에 제시된 인용문에서와 같이 양성불평등한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는 있다. 그러나 교과내용으로 제시된 개선방안 자체가 남녀 차별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룬다.

> 모든 사회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중략)…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모두 갖추도록 기르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2 사회, 2002, ○○○, p. 151)

> 남녀 차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세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위한 봉사와 공존의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2 사회, 2001, ○○○, p. 163)

남녀 간의 역할이나 가족상을 표현하는 교과내용은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및 사진의 내용으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 남성은 밖에서 낚시 등의 여가를 즐기거나 집안 수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 여전히 성분업적 역할을 강조하는 교과내용이 잔존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증가에 대한 교과내용에서 '처음' 또는 '최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토론 장면에서도 아버지는 남성의 대표로, 어머니는 여성의 대표로 묘사하는 등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내용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성 구별 짓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3. 교과내용 수정・보완의 기본 방향

### 가. 보완의 기본 방향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인구교육 관련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교육은 인구 규모,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자질, 인구 변동 요인 등 다양한 인구 관련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단순히 인구현상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현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과내용은 인구 규모나 인구 분포의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현상과의 연계성 역시 도시화나 지역 불균형의 측면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관련 교과내용 구성은 학년 간 학습의 연속성이 결여되거나, 다른 부문의 교과내용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인구 구조와 관련된 교과내용에서 저출산 현상과 그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다루어지고 있더라도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저출산의 결과로서 인구고령화를 논의함에 있어 노인을 사회적 비용만을 유발하는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기술함으로써 왜곡된 가치관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장래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저출산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것이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 등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문제임을 직시하도록 교과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 자질과 관련된 성교육의 시기와 교과내용의 체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시스템에서 성교육 관련 교과내용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체적으로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을 조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지식, 성문제 등에 관한 교과내용이 교과별, 출판사별로 수준 차이가 있는데다가 2~3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수준 차이를 조절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 성교육 관련 교과체계와 교과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교과내용의 주된 특징은 지나치게 핵가족화 등의 가족 형태나 자녀 수 감소에 따른 가족 규모의 변화 등에 편향되어 있다. 그 내용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족 문제들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거 부부,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입양 가정, 조부모 가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소중함, 부모됨의 가치,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개인·가족·사회 간의 공유 등을 강조하는 교과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학교 교과내용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불평등적 요소들이 존재하여, 교과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내용은 전반적으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삽화나 참고자료 등에서 고정된 성역할관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삽화 등은 시각적 효과로 인해 강하게 각인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 나. 교과내용 보완 단계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현행 교과서의 인구, 가족 및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중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1에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0년부터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을 개편할 당시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시기였고,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시기였으므로 교과서에 직접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행 교과서 내용 중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인구, 가족 및 성평등의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별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내용과 보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학년(이번의 경우는 2007학년도)에 적용할 교과서를 보완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학교급별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의 인구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 내에서의 수정·보완은 주어진 교과서 내용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문장의 일부 수정에 국한되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교육 목표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사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인구, 가족 및 성평등에 관한 가치관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구, 가족 및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우선 교육하고, 이어서 모든 교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각 시·도의 교육연수원이 될 수 있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사설 연수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 신교육과정에 맞추어 인구, 가족 및 성평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준비하고, 신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육과정은 2007년에 고시될 예정이고, 신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별 교과서를 개발(또는 현행 교과서를 개정)하여 2009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때 교육목표에는 물론 교과서별 수록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 Ⅳ. 결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 사회현상들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관련 가치관들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 발전'이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상위의 가치였던 시기에 인구 증가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소자녀관의 의도적인 보급은 당시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안이었을 것이다. 출산 억제를 지향하는 소자녀관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소자녀관은 오래 전부터 저출산 사회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 예상되는 현재에도 한국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지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사회 참여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 제 사회 영역에서의 환경은 여전히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 고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시장의 메커니즘은 결혼 및 출산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강하게 유지되어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곤란케 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나 의식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성평등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 자체와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재정립과 태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려대학교인구교육위원회편(1978). **인구폭발과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부.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1997).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a).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b).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c).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d).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e). **과학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f).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1998g).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권상수(1999). **인구현상의 변화와 인구교육내용의 적절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권태환 · 김두섭(199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대연(1989). **교육사회학**. 형설출판사.

김두섭 외(2002). **한국의 인구1**. 통계청.

김두섭 외(2002). **한국의 인구2**. 통계청.

김승권 외(2001).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일 외(1975).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용익(2005).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헌(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인구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원 국민경제연구소.

김태헌(1997a).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 사회적 영향과 적정인구의 논의. 한국인구학회(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김태헌(1997b). 인구전망과 사회적 영향.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김태헌(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교과서주식회사(200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한교과서홈페이지,

http://daehane.com/newsource2/textbook. 참조).

박수미(2005). **가족내 성평등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외(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용의 · 나동진(1975).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 인구교육 중앙본부.

오경종(1978). 교육대학에서의 인구교육. **논문집, 8**. 제주교육대학교.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전국 가족조사에 따른 한국 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해**.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2005).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05). **인구 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 조남훈 · 최은영 · 박세경 · 황나미 · 서문희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3-2)**.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옥임 · 박혜정 · 한대동(1979). **중 · 고등학교 교과서의 인구교육 관련 내용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 · 인구교육 중앙본부.

이해영 · 권태환(편)(1978).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

한국개발연구원(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4). **인구 구조 고령화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Lee, Sam Sik(1997). Son Preference under Low Fertility in Korea.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1025-1043.

• *논문 접수 : 2006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11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11월 27일*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Descriptions Related with Population in Middle School Textbooks Preparing for Low Fertility Era

Tai-Hun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ang-Yong Park (Supervisor, Gyeonggi-do Yulgog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Poo-Kyoung Kwon (Teacher, Sangdang High School)
Jeong-Ae Kang (Teacher, Affiliated High School With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u-Young Lee (Teacher, Banghak Middle School)

The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is lowest among OECD countries, decreasing from 4.53 in 1970 to 1.08 in 2005.

This phenomenon adequately shows the seriousness of the low fertility problem in Korea. If this phenomenon continues, it will impose a negative affect on society by dropping productive manpower, and aging the population as a whole.

This problem may not be solved in the short term. Therefore, I have analysed the text 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find some suggestions and ways to solve the low fertility issues.

The themes of population, family, and gender equality are usually covered in various subjects such as social studies, ethics, home management, physical education, and environment. Among these subjects, social studies and ethics cover the most area of the themes. Because the study of population, family, and gender equality are usually concentrated on specific grades, the continuance of education in these subjects is lacking.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available education is on superficial level. Therefore it appears that students are limited in their understanding appreciation of the problems at hand.

Toward this end, we should approach the presentation of population-related education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I propose altering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to include the seriousness of Korea's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rate. In conjunction, appropriat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s, and practice for teachers should also occur.

Key Words : population education, value education, middle school textbook, low fertility, total fertility rate